

# “매월 등지마을行...아이들과 함께”

## 신행현장

### 하이텔불교동호회 보살행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무인 가를 해주기보다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계 속에서 서로 나누고 주고받는 것이요. 살자체가 그러하기에 남을 도왔던지 봉사활동을 했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대부분 자연사(주지 법현) 등지마을을 찾아가 아이들의 언니와 오빠, 형, 누나로 생활하는 하이텔불교동호회 보살행방(공양주 임수빈) 회원들, 온라인상에서 불교공부를 함께하는 이들이 오프라인에서도 실천을 함께하고 있다.

8월 26일 일요일, 8명의 보살행방 회원들이 아침 8시 30분 카풀장소인 여의나루역에 모였다. 회원들의 손에는 전날 시장 박은 닭매운탕 재료부터 아이들에게 줄 컴퓨터 3대, 수박 5통, 라면 4박스, 주스 20통, 초코파이 20박스 등이 들려있다.

회원들은 물건을 재빨리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한다. 10시쯤 등지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회원들은 아이들과 만나 안고 쓰다듬어 주며 회포를 풀더니, 곧바로 부엌으로 달려갔다. 일일주방장인 오진세 회원이 아이들에게 줄 닭매운

탕을 요리하고, 다른 회원들은 빨래와 청소 등의 봉사를 한다.

드디어 점심시간. 아이들은 보살행방 회원들이 만들어준 음식을 맛있게 먹느라고 정신이 없을 정도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최경희 회원은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며 “오래전부터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등호회 게시판을 보고 참가했다. 이제 등지마을에 와서 애들과 함께하

### 요리·빨래 등 봉사 컴퓨터 교육도 실시

는 시간이 한달중 가장 행복하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다”고 토로했다. 법현스님이 후식으로 타준 커피를 마신 회원들은 아이들과 축구공을 들고 운동장으로 나섰다.

큰 아이들은 축구를 하고, 어린 아이들은 그네뛰기 대화를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다.

아이들에게 수박을 건네주던 김지훈 회원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는 큰 애나 작은 애나 안아주는 것을 좋아해 힘이 들지만 아이들이 스투팍



◇매월 등지마을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하이텔불교동호회 등지마을 봉사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다가오게 하는데 몇 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며 “이곳에 있으면 편하고, 부지런 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진실한 즐거움을 배운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저녁식사후 아이들에게 컴퓨터방을 꾸며주고, 컴퓨터교육도 실시했다. 밤이 깊어가고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자 회원들은 간단한 자체모임을 가진 뒤 밤 12시쯤 서울에 도착했다.

하이텔불교동호회 보살행방 회원들은 모두 30여명. 이들은 올해 1월부터 등지마을 봉사반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보살행을 펼치고 있다. 매달 아이들이 원하는 메뉴를 추천받아 사이버상에서 의견을 모아 직접 시장을 본 뒤 음식을 만들어주고 함께하는 봉사를 펼치고 있다. 또 회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인 사랑과 함께 장통과 책상 의자 책꽂이 학용품 등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보시에도 열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등지마을 봉사에 나서는 보살행방 회원들이 힘을 얻는것은 직접 참가하지 않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하이텔불교동호회 회원들이 매달 보내주는 보시금과 물품들. 보살행방 공양주인 임수빈씨는 “사이버 상에서 불교공부를 하다보니 부처님 가르침이 실천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꼭 무엇을 해준다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정서가 풍부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뿐이다”며 “내년에는 등지마을 뿐 아니라 다른 복지관련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ha.com

## 시들어가는 잎과 즐기 가을의 또다른 아름다움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 다 이기고 무르익은 낱알과 열매에서 농부의 수고로움이 영글었다'는 상징적인 인사로 이 계절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 계절은 조락(凋落)의 시기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는 한편에서는 이제까지 열매 맺게 해주던 잎과 줄기가 시들어 떨어지고 마르며, 거기에서는 삼라만상의 무상(無常)함이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쉽고 덧없는 세월에 대해 전혀 무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결실과 조락이 함께 하는 계절이면 나의 육신은 시들어 가는 잎과 줄기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어놓은 내

### “내가 지은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자”

가 지은 업(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인간이 지은 업은 낱알과 열매와 같은 달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현실적인 우리의 구별되지 않아서 무시할 수도 있고, 위선으로 감출 수도 있어서 큰 걱정을 주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인간이 정한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거나 적발되지 않는다면 아무 일없이 편하게 넘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보은비닐 없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쓰고 난 폐비닐이 문제가 됩니다. 대개는 밭둑에서 태우고 마는데, 그 매캐한 연기가 절 안으로 날아들어 마를 방법 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못 태우게 할 수도 있고 나아가 고발할 수도 있으나 어디 세상인심을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밤잠잠들며, 대기오염이며 하는 것은 인정의 뒤연으로 밀려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에게 살아야 아니겠습니까.



북혜스님  
제주 화천사 주지

실명 속에 사는 시골이 이러한데, 익명 속에 사는 도시야 오죽할까요.

가끔 여름의 도시골목을 지날 때 느껴지는 것은 악취와 열기밖에 기억이 없습니다. 에어컨은 그 더위를 모든 사람들의 공간에 전가시키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수리장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듯 하고 우리는 다음 생의 과보를 기다릴 것도 없이 현재 지옥의 열매를 수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지게 된 육신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시들어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은 모든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겠으나 제 몸 건강하자고 거리낌 없이 다른 생명을 취하는 인간의 행태는 모든 것이 인과(因果)의 사슬로 연결되었다고 하는 연기(緣起)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위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특정한 동물이 몸보신에 좋다고 마구 잡아, 씨를 말려서 초래되는 생태계의 파괴는, 결국 소수의 건강을 위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비닐과 농약, 화학비료 등으로 토지와 공기가 썩어가고, 건강과 보는 즐거움을 위해 잡아들이는 각종 동식물의 남획 속에 모든 생명체의 공간이 균형을 잃을 때, 배불리 먹고 활기찬 생활을 한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겠습니까.

결실과 조락이 함께 하는 이 계절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미련 없이 떠나는 잎과 줄기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결코 허무한 무상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남김없이 열매에게 깎듯 하고 가는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 신행 캘린더

**9월 6일 (목)**  
■불교환경연대 창립법회=불교환경연대는 오후 1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님, 김명자 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LNB싱어즈 축하공연도 마련된다. (02)720-1888  
■영구대사 추모대제=청주삼일연합회는 오전 10시 중앙공원에서 청주성달한 409주년을 맞아 '영구대사 추모대제'를 봉행한다. (043)284-6812

**9월 7일 (금)**  
■통일대화마당=좋은벗들은 28일 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정도 회관 3층 강당에서 '통일교육을 다시 본다'를 주제로 제7기 통일대화마당을 연다. (02)587-8996  
■생명나눔 일일호프=생명나눔실천회는 오전 1시~11시까지 동국호프 지하 1층에서 라이프 셰어(Life Share) 일일호프를 마련한다. (02)734-8050  
■은빛어르신봉사대 수련회=은평노인종합복지대 은평은빛어르신봉사대는 오전 10시 30분 일산 호수공원에서 노인들과 함께 하는 수련회를 개최한다. (031)919-8677  
■불교교양강좌=부천 석왕사는 제1기 불교교양강좌를 개강한다. 초·중·고급반으로 나누어 실시되는 이번 강좌는 6개월간 계속된다. (032)668-0076

**9월 8일 (토)**  
■관음사 무료진료=영남불교대학·관음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영남불교대학 2층 법당에서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한다. 진료는 허한방병원에서 맡는다. (053)474-8228

**9월 9일 (일)**  
■인도라마 창립2주년법회=인도라마생명공동체는 오전 10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3281-1888  
■설경 스텝 선진강좌=법심회는 13일 까지 오후 6시 수석사에서 前 수석사 주지 설경스님 초청 '선가귀감' 특강을 실시한다. (041)634-6777  
■서울 문화유산 답사=터사랑은 서울 문화유산 바로알기 제23회 일일 답사를 실시한다. 이번 답사 코스는 남산 한옥마을->타입캡슐->남산->봉수대. (02)722-9747  
■영주 불적 답사=한국석불선양회는 경북 영주 가흥동 마애삼존불을 친견하고 부석사를 순례하는 제17차 답사를 실시한다. 출발은 오전 7시 등대문 이스트 호텔 앞. (016)267-7945

## 생활속의 불교 소유는 구속이고 집착은 족쇄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상대가 누구든, 내가 소유하고 내가 붙잡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소유 당하고 내가 붙잡히는 것이다.

가령 그 대상이 돈이라고 하자. 내가 벌고 내가 갖는 것 같지만 일단 돈이 수중에 들어 오면서부터는 알게 모르게 돈에 이끌려 다니게 된다. 누가 빼앗아갈까 봐 두려워하고 내 손을 떠나게 될까 봐 걱정하게 된다.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도 그렇다. 일단 내 것이다 싶으면 놓치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게 마련이다.

대상이 사람인 경우도 같다.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소중한 사람이라면, 늘 그와 함께 해 주고 싶고 상대 또한 같은 마음이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여의치 않

을 때는 비판에 쫓고 괴로워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걸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사랑하는 일일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이 있다. 사랑하는 데 왜 떠나보낸단 말인가. 사랑하는 만큼 오래오래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이 있다. '젊은이가 겪게 되는 일 중에 가장 불행한 일은 자비심 많은 어머니를 갖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자녀의 독립을 가로 막고 자녀의 자유로운 삶을 구속하기 때문이다.

그 무엇으로부터, 그 누구로부터 자유롭고 싶거든 그 무엇을 자유롭게 하라, 그 누구를 자유롭게 하라.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거든 돈이 제 길을 가게 하라. 소유는 자유가 아니다. 대상이 무엇이든 마찬가지다. 내가 그로부터 해방되고 싶거든 먼저 그를 풀어 주어야. 그를 풀어주면 나의 족쇄도 풀린다. 그를 풀어주지 않고 나만 해방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으로 자유롭게,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려면 욕망과 집착이라는 노비문서부터 버려라. 탐욕의 노비문서는 나를 얽어매는 마음의 끈이다. 마음이 풀리면 삶도 풀린다. 얼었던 강이 녹듯이 삶의 강물도 녹는다. 강물이 풀리면 배가 울 것이고, 그리운 밥 소식이 울 것이다.

龍眼

## 현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가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 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악의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사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대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협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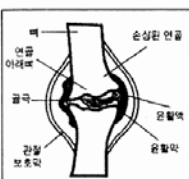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편두통, 신장염 등(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청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 물컹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관절은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수직으로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풀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관절염), 어 모든 증상으로 부터 완전 해방될 수 있는 특수 영양식품이 수입되어 화제다.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갑골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제'는 남아 없지는 않지만 뼈가 생성되고 풀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사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사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최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제' 국내 삼일양행 (02-790-8200)에서 직접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코랄사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항지방분의 10여 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 공고

### 승려, 포교사, 법사, 연수교육 및 법계고시 실시

대한불교 무량중에서는 본종 산하 각 사암 승려 및 법사, 포교사, 창건주 대표자를 대상으로 2001년 중단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승려는 법계고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교육에 해당되는 중도들은 대소불사에 다양할수록 사료되으나 필히 참석하시어 본 소정의 교육을 통해 참신한 불교 지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중도의 사명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교육 및 법계고시 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2001년 9월 13, 14, 15일 (2박 3일)	총무원 총본산 지리산 칠보정사	본 중단 등록된 각 사암 주지 및 승려, 법사, 포교사, 창건주

2001년 8월 23일

문의처 : ☎ 055)883-7771, 7790, 7781, 882-9916

대한불교 무량중 총무원장 정혜안